

# 4층 객실 진입로 확보 위해 5층 상판 절단

### 잠수부들 제대로 확인 못한 곳 미수습 여학생 2명 추정 선체변형 따른 위험성 우려에 선체조사위 "안전성 영향없다"

세월호 침사 당시 단원고 여학생들이 있던 4층 객실을 수색하기 위해 5층 전시실 천장을 때내기 시작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가 좌현으로 누워 해저면에 부딪치면서 5층 전시실이 무너져내려 4층 선미부분과 거의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미수습한 단원고 여학생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홍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과장은 지난 30일 "5층 전시실 천장(상판) 전체를 절단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이 곳은 잠수부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곳으로, 인양 후에도 선체 훼손이 워낙 심해 수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절단 작업은 전시실 천장을 벗겨낸 뒤 바닥에서 4층 객실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새로 뚫는 '부분 절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5층 전시실 전체 절단면 크기는 가로 20m, 세로 22m가량인데 한 번에 잘라내지 않고 가로 5m, 세로 3m가량의 여러 조각으로 나눠 절단한다.

5층 천장이 제거되면 바로 4층 선미 부분의 천장에 부분적으로 구멍을 뚫어 객실로 진입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전시실 부분 절개가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며 절단 계획에 동의했다.

수습본부는 선체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구조해석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한국해양대 이상갑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현재 세월호에는 인양할 때 뚫은 작은 구멍이 160여개, 구조를 위해 뚫은 곳이 16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가로 1.2m, 세로 1.5m 크기로 뚫은 진출입로(4층 선수쪽 1곳은 가로 2.4m 세로 1.5m)가 12개이고, 나머지 4곳은 해저에서 수색할 때 3, 4층 선미에 뚫어놓은 개구부다. 여기에 5층 전시실 공간이 뜯어지고 수색을 위해 몇 곳의 진출입로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체변형으로 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미 절단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습본부는 이 업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진입로 확보 여부와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지지대로 세월호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수습된 유류품은 총 600점이 다. 의류가 275점으로 가장 많고, 신발류 112점, 가방류 64점, 전자기기 32점, 휴대전화 20점 등이다. 뺏조각은 총 534점이 수거됐다.

목포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 82점에 대해 습득물 공고 절차를 밟았다. 목포신항에 마련된 세월호 유류품 수령사무실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을 확인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목포시는 습득 공고한 유류품 82점 중 3점을 주인에게 반환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유류품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주인 찾는 유류품 세월호 희생자 유류품의 주인을 찾는 습득공고가 지난 29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연합뉴스

# “광주 영세 골목상권 죽이는 이마트 매장 개점 안된다”

### ‘노브랜드 치평점’ 이달말 오픈 상인들 “유통 대기업 쫓수” 비판

시장이나 중소마트 운영 상인들에게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이마트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준대규모점포(마트) 1호점을 열기로 하면서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1호점 개점은 ‘춧불민심’에 역행하고 영세 상인, 자영업자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반하는 유통대기업의 쫓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5월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56-5번지(위치도)에 준대규모점포를 열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마트가 내세운 상호는 ‘노브랜드 광주 치평점’으로 점포 크기는 578.31㎡(170평) 규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서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6일 공고하자 광주시상인연합회,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으로, 원가 경쟁력과 체계화된 유통시스템을 무기로 영업활동에 들어가면 인근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 ■이마트 치평동 노브랜드 위치도



들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의 매출 급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특히 “광주 서구가 이마트 노브랜드에 뚫리면 광주의 모든 골목상권이 이마트 노브랜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치평점 개점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재 광주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춧불민심은 재발반절사는 사회가 아니라 자영업자 서민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유통공룡 이마트가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침입을 강행한다면 시장 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와 연대를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하남산단 에어필터 생산공장 불...8000여만원 피해

### 인명피해 없이 23분만에 진화

지난 30일 새벽 3시59분께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하남산단 9번로에 위치한 자동차 에어필터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3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300㎡가 소실되고 697㎡의 그늘을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

재로 공장 내부에 있던 생산설비기계와 보관 중이던 자동차 에어필터의 원자재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8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young@kwangju.co.kr

# 유승민 후보 홍보 현수막 담뱃불 훼손...경찰 수사 착수



○...광주에서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측이 내건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누군구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BYC건물 앞 4거리에 걸려있던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보 현수막 가운데 후보자 얼굴 부위에 담뱃불

흔적 4개가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문자로 신고해왔다는 것.

○...경찰은 바른정당 측 수사외뢰 검토와 별개로 선거 현수막 훼손 용의자 추척에 나서면서 “선거법상 특별한 의도가 없어도 선거 벽보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조선대 개방이사 새 국면

### 교육부 후보 추천 요청...12일까지 안되면 직권 추천

### 이사회 갈등 속 대자협 8일 회의 거쳐 10일 통보키로

교육부가 조선대에 소속한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까지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대학 구성원·이사회 간 갈등에 교육부가 관여하면서 향후 이사회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조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관할하는 대학평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까지 개방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선대는 지난 20일

89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선대는 지난 2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상태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실정이다.

교수·직원·총동장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교육부 입장과 관련, 오는 8일 대학 구성원 간 회의를 거쳐 10일 교육부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

지만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개방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받은 뒤 기존 이사회를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한데다,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기한(12일) 내 추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봉주 조선대 교수평의회장은 이와관련, “8일 교육부의 개방이사 추천 요청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일 대학평의회 입장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2699-5300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전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전남 보성 신축아파트(분양)

보성 역 1분!! 보성군청 5분!!

총 187세대

25평, 29평, 34평

보증금 3,000만 월 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경기도 여주시 아파트(분양)

버스 정류장 5분! 가남초등학교 7분!!

2017년 12월 성남정호원간 고속도로 예정

24평 - 평가가 6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청단지구 생활공원 1분, 총 28개 (월수익 3,000만 이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속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1억 1분 총장로 중심 상업권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북구 용봉동 (12층 중 6층 상가) 토 62평, 건 99평 용봉동 cgv, 굿모닝 타운 주차완비 / 월세 100만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3천

###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평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평가 6천 → 최저가 2천7백
3. 삼우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삼우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평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4.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5.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경매 무료교육

■ 매주 월요일 10시

기초교육 / 입찰 방법 교육

▶ 경매 실전 전문반 ◀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개찰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